

# 판사들 “혹시 나도..” 충격

## 모방 범죄 우려 속 신변보호 대책 분주

### 광주지법 판사들 ‘석궁 테러’ 긴급 회동

현직 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6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법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은 이날 오후 지법 회의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그동안 판결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들의 유사 사례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법관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판사들은 “판사들의 개인 신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원 및 법정 입구 출입 검색 철저 ▲법정 경위 제복 착용 및 방어 장구 휴대 ▲판사실의 제한·통제장치 마련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법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이명철 판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같은 일이 또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관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한 뒤 “혹시 있을지 모를 모방 범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법관들이 안심하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1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서 법국본 주최로 열린 한미FTA 저지 법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협상중단을 촉구하며 미국소 상징물을 불태우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전남에서 상경한 450여명을 비롯, 총 3천200여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 ‘석궁 테러’前 교수 살인미수 혐의 영장

고법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은 16일 석궁으로 화살을 발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현직 부장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성균관대 전(前) 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귀

가 중이던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으로 화살을 발사, 복부에 명중시켜 깊이 2cm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당시 석궁과 화살 9개, 칼, 노끈 등을 가지고 있었고 ‘뭐들아보니까 바로 화살을 쏘고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었다’는 박 부장판사의 진술 등에 비춰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 ■ 테러 발단 된 수학문제는 무엇?

### 전제조건 오류 놓고 김씨-학교 갈등

‘판사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수학문제 출제 오류 논쟁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균관대는 1995학년도 대학별고사 수학Ⅱ의 7번으로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했다.

문제는 “영벡터가 아닌 세 공간 벡터  $a, b, c$ 가 모든 실수  $x, y, z$ 에 대하여  $|xa + yb + zc| \geq |x|a + |yb|$ 을 만족할 때,  $a$ 와  $b$ ,  $b$ 와  $c$ ,  $c$ 와  $a$ 가 각각 서로 직교함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제정위원이던 김명호 당시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는 이 문제의 전

제조건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전원 면접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그러나 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채점위원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김씨가 이 문제에 매달리며 공개 비난도 서슴지 않자 대학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조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후 김씨는 19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다.

김씨 재임용 탈락 당시 서울대 등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은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는 연판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계 양대 과학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Science)는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 ‘매서메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는 ‘정직의 대가’(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김씨에 감염됐던 것으로 첫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1997년 5월 구례군 화엄사 뒤편 금정암에서 17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2001년 500그루 ▲2002년 519그루

▲2003년 522그루 ▲2004년 488그루 ▲2005년 188그루에서 밭발했다. 산림청은 재작년부터 특별법을 세워 소나무류 이동방지 및 방재예산 집중 투입 등 재선충병을 잡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경기도 광주에 이어 강원도 춘천까지 확산되면서 과연 효과적인 방재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재선충병=크기 0.6mm~1mm

의 머리카락 모양 재선충이 나무조직 내에 살면서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 감염되면 1~3개월 이내에 100% 말라 죽는다.

## 소나무류 재선충병 ‘비상’

### 춘천서도 감염…전국 확산 일로

강원도 춘천에서 고사한 소나무가 15일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재선충병 전국 확산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의 소나무림에서 재선충병의 감염이 처음 확인된 뒤 춘천까지 북상, 1988년 부산에서 시작된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20년 만에 전국 55개 시·군·구로 확산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해 ▲신안 압해도 71그루 ▲목포 49그루 등이 재선충병에 감염됐던 것으로 첫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1997년 5월 구례군 화엄사 뒤편 금정암에서 17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2001년 500그루 ▲2002년 519그루

▲2003년 522그루 ▲2004년 488그루 ▲2005년 188그루에서 밭발했다. 산림청은 재작년부터 특별법을 세워 소나무류 이동방지 및 방재예산 집중 투입 등 재선충병을 잡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경기도 광주에 이어 강원도 춘천까지 확산되면서 과연 효과적인 방재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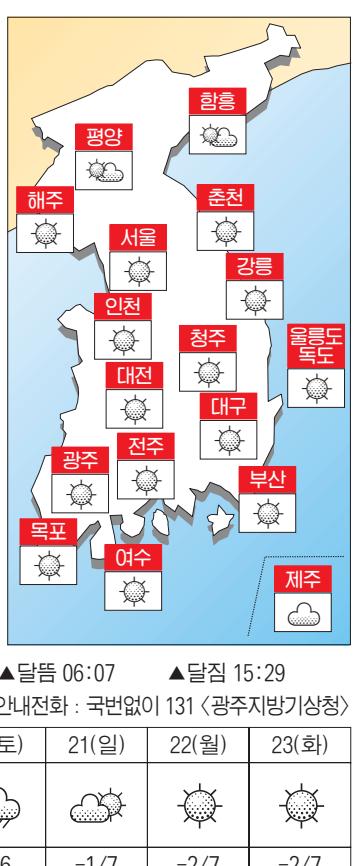
### ‘女風당당’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연수생 중 판·검사로 임용되는 여성 비율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975명 중 여성은 242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해

**포근한 겨울 햇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구름만 조금 끼긴다.

1월 17일  
(음 11월 29일)  
◇전국날씨



### 1,800억 투입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 광주과기원 총괄기관 선정



사업 단은  
16일 김창세

건설교통부  
에서 추진 중인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총괄하게 됐다.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해수를 유입해 담수로 치환·공급하는 것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5년간 사업단에 1천8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5위권 상품개발 및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건설교

통부가 최근 실시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단 공모에서 광주과

기원이 사업단

총괄기관으로, 이 대학 환경공학과 김인수(50·사진) 교수는 사업단장으로 각각 선정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용이 예정된 연수생 100명 중 여성 44명(44%)으로 집계됐다.

관·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으로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었다. 연수생들의 최종 성적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4대6의 비율로 합산되며, 관·검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순으로 임용된다.

/연합뉴스

### 판사 임용 64%

### 검사 임용 44%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20.8%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895명 중 186명이 여성이었다.

수료생 가운데 판사 임용이 예정된 연수생 90명 중 여성은 58명(64.4%)으로 처음 60%를 웃돌았고, 검사 임

용이 예정된 연수생 100명 중 여성 44명(44%)으로 집계됐다.

관·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으로 사

상 처음으로 넘어서었다. 연수생들의

최종 성적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4대6의 비율로 합산되며, 관·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순으로 임용

된다.

/연합뉴스

용이 예정된 연수생 100명 중 여성 44명(44%)으로 집계됐다.

관·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으로 사

상 처음으로 넘어서었다. 연수생들의

최종 성적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4대6의 비율로 합산되며, 관·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순으로 임용

된다.

/연합뉴스

용이 예정된 연수생 100명 중 여성 44명(44%)으로 집계됐다.

관·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으로 사

상 처음으로 넘어서었다. 연수생들의

최종 성적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4대6의 비율로 합산되며, 관·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순으로 임용

된다.

/연합뉴스

용이 예정된 연수생 100명 중 여성 44명(44%)으로 집계됐다.

관·검사 임용을 앞둔 여성 비율은

전체 190명 중 102명(53.7%)으로 사

상 처음으로 넘어서었다. 연수생들의

최종 성적은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이 4대6의 비율로 합산되며, 관·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적순으로 임용

된다.